

보도시점 2026. 6. 24.(수) 12:00 (목요일 조간) 배포 2026. 6. 23.(화)

고준위방폐물, 소통 강화로 신뢰 모색... 해외 선도국 사업자와 주민에게 듣는다

- 고준위위원회,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국제토론회(SaRam 2026) 개최
- 일본·캐나다·프랑스·스웨덴·스위스·핀란드 등 6개국 방폐물 관리사업 관계자 및 유치지역 주민대표가 갈등극복의 경험 공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의 핵심 열쇠인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신뢰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 주요국 방사성폐기물 처분 사업자와 방사성폐기물 유치지역 주민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이들로부터 생생한 갈등극복과 소통의 경험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권, 이하 고준위위원회)와 한국 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은 고준위 방폐물 관련 전문지식과 해외 선도 경험을 공유하고 방폐물 관리사업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9차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국제토론회(SaRam 2026)*’를 6월 25일부터 이틀간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국제심포지엄(SaRam: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Safety Improvement & Stakeholder Confidence i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국제토론회에는 국내외 방폐물 관리 전문가를 비롯해 방폐물 관리사업에 관심있는 지자체 공무원, 지역주민, 학계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올해 4월 고준위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의결하며 부지선정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가운데 정부, 방폐물 관리기관, 지자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간 문턱없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국제토론회는 ‘고준위 방폐물 소통 콘서트: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 신뢰 구축, 해외사례로부터 듣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폐물 영구처분시설 (ONKALO) 운영을 앞둔 핀란드를 비롯해 일본,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등의 방폐물 관리기관과 경제협력개발기구 원자력기구(OECD NEA)의 소통 전문가뿐만 아니라 부지선정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해외 국가의 지방정부 대표와 지역주민이 연사로 참여해 생생한 갈등극복과 소통의 경험을 공유한다.

한편, 이번 행사에 앞서 김현권 고준위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오전 핀란드의 미카 포효넨(Mika Pohjonen) 포시바 솔루션(Posiva Solutions)* 대표 이사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서 스웨덴 심층처분시설 유치지역인 외스트함마르(Östhammar)시(市)의 파비안 샤베리(Fabien Sjöberg) 시장 및 에스케이비 인터내셔널(SKB Int'l AB)**의 매그너스 홈퀴비스트(Magnus Holmqvist) 대표이사, 에스케이비 누(SKBNu)***의 스티그 비외르네(Stig Bjerne)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갖는다.

* 포시바 솔루션(Posiva Solutions): 핀란드 방폐물 관리회사인 포시바(Posiva)의 해외사업 전문 자회사로, 핀란드의 방폐물 관리기술·경험을 해외국가 및 유관기관 등에 컨설팅

** 에스케이비 인터내셔널(SKBNu): 스웨덴 방폐물 관리회사인 SKB의 해외사업 전문 자회사로, 스웨덴 방폐물 관리기술·경험을 해외국가 및 유관기관 등에 컨설팅

*** 에스케이비 누(SKBNu): 스웨덴 방폐물 관리회사인 SKB의 자회사로, 외스트함마르 등 유치지역 내 사업개발 지원 및 기업 대출보증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이들 국가별 고준위 방폐물 관리사업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주민소통 및 유치지역 지원방안에 대해 심도깊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이번 국제토론회를 계기로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핀란드, 스웨덴 등 해외 방폐물 관리기관 간 상생의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김현권 고준위위원회 위원장은 “안전한 영구처분 체계 구축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부담을 미래세대에 넘기지 않아야 하는 ‘세대 간 정의’의 문제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며, “과거 수차례 부지선정을 시도했으나 갈등과 실패를 겪었던 뼈아픈 교훈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일방적인 설득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라며, “고준위위원회는 민주성·책임성·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과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주민 결정권을 철저히 보장하여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방폐물안전관리 국제토론회(심포지엄) 시간계획.

담당 부서 <총괄>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기반조성과	책임자	과 장	정대환 (044-203-3650)
		담당자	사무관	양수영 (044-203-3651)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전략팀	책임자	팀 장	박종걸 (054-750-4250)
		담당자	과 장	주재연 (054-750-4257)



일자	시간		주요 내용
6.25. (목)	12:40~13:00	20'	등록(사전등록자 접수 및 현장등록 등)
	오프닝 세션		
	13:00~13:15	15'	개회식(개회 영상, 개회사 및 환영사)
	고준위 방폐물 심층 처분사업 소개		
	13:15~13:30	15'	한국의 고준위방폐물 관리사업 및 심층 처분프로그램 소개
	해외 고준위 방폐물 처분사업자와 지자체·지역주민 간 소통 사례		
	13:30~14:15	45'	일본의 고준위 방폐물 처분사업 추진 사례 - NUMO의 DGR 프로그램 및 지자체 소통 경험(15') - 지역주민의 부지선정 참여 경험 1,2(각 15')
	14:15~14:40	25'	커피 브레이크
	14:40~15:10	30'	캐나다의 고준위방폐물 처분사업 추진 사례 - NWMO의 DGR 프로그램 및 지자체 소통 경험(15') - Ignace 시의 DGR 부지선정 참여 경험(15')
	15:10~15:40	30'	프랑스의 고준위방폐물 처분사업 추진 현황 - Andra의 DGR 프로그램 및 지자체 소통 경험(15') - 지자체의 DGR 부지선정 참여 경험(15')
	15:40~16:10	30'	스웨덴의 고준위방폐물 처분사업 추진 사례 - SKB의 DGR 프로그램 및 지자체 소통 경험(15') - 지자체의 DGR 부지선정 참여 경험(15')
	16:10~16:30	20'	커피 브레이크
	16:30~17:20	50'	Q&A(청중과의 대화)
	만찬		
6.26. (금)	09:30~09:40	10'	등록(사전등록자 접수 및 현장등록 등)
	해외 고준위 방폐물 처분사업자와 지자체·지역주민 간 소통 사례		
	09:40 ~ 10:00	20'	스위스의 고준위 방폐물 처분사업 추진 사례 - Nagra의 DGR 프로그램 및 지자체 소통 경험(15')
	10:00 ~ 10:20	20'	핀란드의 고준위 방폐물 처분사업 추진 사례 - Posiva의 DGR 프로그램 및 지자체 소통 경험(20')
	국제기구 고준위 방폐물 관리사업 이해관계자 소통 전략		
	10:20~11:10	50'	OECD/NEA의 이해관계자 소통 전략 - NEA FSC 및 RWMD
	11:10~11:20	10'	휴식
	11:20~12:00	40'	Q&A(청중과의 대화) 및 만족도 조사
	12:00~12:05	5'	마무리
오찬			